



메리츠증권 정중환 광주지점장은 LG데이콤과 플랜티넷을 추천종목으로 선정했다. 그는 LG데이콤을 추천주로 꼽은 이유로 최근 주식시장의 관심이 엘로우칩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우량주인 이종목이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는데 고점대비 낙폭이 커 가격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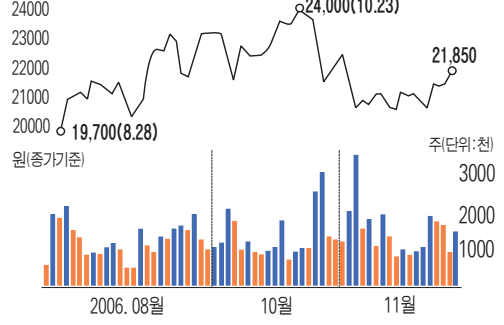
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 업체인 플랜티넷은 올해 3분기부터 실적부진에서 벗어나고 있고, KT의 새로운 초고속인터넷 인증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향후 실적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자회사 LG파워콤 상승 견인

#### ■ LG데이콤

LG그룹의 유선통신 사업자로 국제전화 '002'로 유명한 데이콤을 인수 합병하면서 LG데이콤이 됐다. 매출구성을 보면 국내전화(21.2%)와 국제전화(16.3%) 등 전통적인 유선전화보다 인터넷 전화 등 인터넷 사업 매출이 48.9%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통신업종 가운데 실적향상이 가장 두드러진 업체로 꼽히고 있다. 2003년만 하더라도 1조2000억원의 매출에 순손실이 2천453억원에 달했으나 2004년 턴어라운드 성공 이후 순이익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지난해 5월부터 꾸준히 상승해 1년6개월만에 3배 가까이 올랐다. 올해도 3분기 실적이 기대이상으로 나오면서 3분기 연속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45.4%의 지분을 보유한 LG파워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 중 하나다.

#### ■ LG데이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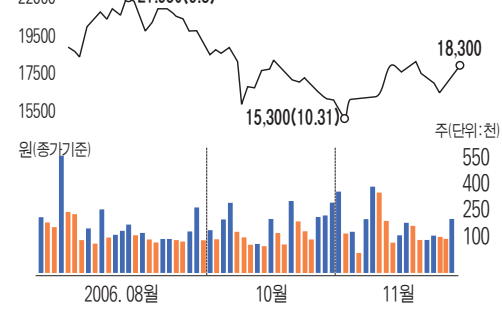
이로 인해 증권사들의 매수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증권은 LG파워콤의 순조로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확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동양증권은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목표주가를 3만원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증권과 대한투자증권 등은 하나로텔레콤이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등 유선통신시장의 과열 경쟁구도와 LG파워콤의 흑자전환 지연 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 中·대만 현지법인 실적 향상

#### ■ 플랜티넷

인터넷상에서 포로노 등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상장 이후 주가가 연달아 3만~3만5천원대를 유지했으나 올들어 하락세로 전환해 1만2천원대까지 내려갔다 현재 1만8천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들어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심화와 초고속인터넷의 주요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의 불량 가입자 직권해지로 인해 이 회사의 가입률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들어 50%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것도 주가 하락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기간통신으로 지정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완화가 예상되고 KT의 서울지역 신인증시스템 구축으로 가입자 증대가 기대되고 있어 향후 성장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및 대만 해외 현지법인의 실적향상에 따른 외형 성장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메리츠

#### ■ 플랜티넷



증권은 국내 최대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KT의 새로운 인증시스템이 올해 서울지역에 이어 내년에는 경기, 경상, 제주 등으로 확대되면서 플랜티넷의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도 2008년까지는 가입자 증가로 이익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는 상승 전환을 위한 변곡점인 2만 원대와 주봉상 60일선이 위치한 2만2천원을 돌파해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원·달러 환율 하락 930원선 턱걸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 반전하며 다시 930원선을 위협했다. 장중에는 9년만에 최저수준인 927.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1.40원 떨어진 930.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4.00원 하락한 928.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매도세가 늘어남에 따라 927.00원으로 떨어진 뒤 저가 인식 매수세 유입으로 차츰 낙폭을 줄여 나갔다. 환율은 오후들어 엔·달러 환율이 116엔대로 복귀하자 931.80원까지 고점을 높인 뒤 차익성 매도로 930원선으로 하락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이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수출 중소기업 상환 최대 1년6개월 유예

환율 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상환이 최대 1년6개월까지 유예되고 3천억원이 배정되는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 지원 기간과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원·엔 환율 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논의를 통해 직전 또는 당해 년도 총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이 환율 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을 경우 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의 상환을 최대 1년6개월 미뤄주기 했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생특례 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구조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3천억원 규모의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지원 기간을 자금 소진될 때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 기업 요건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0% 이상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0%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중소기업의 환변동보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보편금을 전액지급하는 대신 환율이 상승하면 환수금을 완전 면제해주는 환수금 완전 면제형과 보장환율구간을 기준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보편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이 오르면 환수금을 일부 면제해주는 환수금 일부 면제형 등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통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이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무담보소액대출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1천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중부세 신고·납부 어떻게 기간 넘기면 3% 공제 혜택 못받아

국세청이 27일 중부세 대상자 35만1천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신고 안내서에 무슨 내용 담겼나. ▲자진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이 동봉돼있다. -안내서를 받았뒤 어떻게 해야 하나. ▲물건명세서 등을 보고 이의가 없으면 신고납부 기간인 오는 12월 1~15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기간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나.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또 미신고자에게 내년 2월중 발부될 예정인 결정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세액이 50만원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5년간 추가로 부과된다. 이와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도 시행 초기 임을 반영해 2007년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신고 안내서를 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실제 부동산 보유내용에 따라 신고서를 제작성, 신고해야 한다. 안내서에 기재된 책임직원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서 자기작성 시스템(CRTax-C)을 참조하면 된다. -통지서 못 받았는데 중부세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의 조회서비스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이를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납세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디카 멀티브랜드 매장 모든 브랜드의 디지털 카메라와 사진장비 등을 한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디카 멀티브랜드 매장 'PixDix'가 27일 서울 명동에 문을 열었다. 초보자들의 디카 구매를 돕기 위해 전문상담원이 상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 중부세 납세자 중 71%가 다주택자

신고세액 1조7천273억

작년의 2.7배 수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중 71.3%는 2세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1주택 보유자는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함께 토지 등 전체 중부세 대상자는 35만1천명(법인 1만4천개 포함)으로 이들이 내야하는 중부세 신고세액은 1조7천273억원에 달해 작년의 2.7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7일 중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이날 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종태 기자

가 된 개인 주택분 중부세 대상 인원은 23만7천명으로 전국 세대(1천777만세대)의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주택분 중부세 대상자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5만4천300명(65.2%)으로 가장 많고 경기 6만4천명(27.0%), 대전 2천700명(1.2%), 부산 2천300명(1.0%), 충남 1천600명(0.7%) 등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 4만5천명(20.3%), 서초 2만3천명(11.8%), 송파 2만4천명(10.1%) 등 강남3구가 절반에 육박했고 경기 성남 2만7천명(11.4%), 용인 1만2천명(5.1%), 서울 양천 8천명(3.4%), 용산 7천명(3.0%) 등도 많은 편이었다. /연합뉴스

## AI '대체재' 효과

### '치킨' 울고 '돼지고기' 웃고

익산에서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25일과 26일 치킨업계 매출이 감소한 반면 돼지고기, 수산물 등 대체 식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는 특히 가족의 살(殺) 처분 장면이 각 방송사에서 집중 방영된 26일 저녁 이후 두드러져 전년 동기 대비 20~30% 감소했다고 치킨협회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치킨업체들은 매출 하락 폭이 크지 않은 만큼 당분간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대응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AI와 닭고기 요리와는 무관하다는 안전성 홍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때문이다. AI로 인해 작년 동기에 비해 10% 정도 매출이 줄었다고 밝힌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당분간은 매출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문제인지 장기적인 문제인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돼지고기와 수산물 등 대체 식료품 판매량은 늘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익

산지역 AI 발생 소식이 전해진 후인 23일부터 26일까지 돼지고기 앞다 리살과 고등어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25.7%, 13.2% 각각 신장했다. 이마트는 두가지 품목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고단백으로 대체재 성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마트는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양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에 닭고기 특판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 방침이다. 삼성세스코 홀플러도 24일부터 3일간 대체식품의 매출이 전주에 비해 돼지고기가 2%, 환우 2.3%, 수산물 1.8% 가량 늘었다. 롯데마트는 지난 주말인 25-26일 축산물 매출이 전주와 비교해 돼지고기는 15%, 소고기가 5% 각각 늘었고 수산 제품인 선어는 3%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 대체재(代替財)=서로 대신할 수 있는 관계의 재화. 쌀과 밀가루, 만년필과 연필, 버터와 마가린 등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엘이디라이텍	회로 설계 및 ArtWork 가능자	초대졸/경력3년	2200~2400	11/30	062-602-7849
이모레신인원직업	영업관리/사무보조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1/30	062-512-6214
홍남측판	정규직 제품생산/납품 사원채용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30	061-393-8171
HRN	SK텔레콤 114/미납상징점 동시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1/30	062-529-2671
신성하이텍	CNC선반, VMCT조직원	고졸/경력1년	2000~2200	11/30	062-952-1441
괴레벨	소물리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01	062-384-7974
네스스코리아	현장공무 담당 및 현장 개통 인력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1	062-525-3033
도곡온천관광호텔	도곡온천관광호텔 분야별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01	061-375-0025
삼광실업	구매관리사무원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12/02	062-951-1964
신일가스	고입가스용기검사장 오퍼레이터,관리	초대졸/경력2년	2200~2400	12/05	062-951-0011
넥스스코리아	국내영업 대졸 신입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6	043-270-0214
롯데홈쇼핑	주말데일리 롯데우유 반기인 신입사원 채용 공고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2/06	062-571-7003
남해철강	[건설 품질관리/생산관리 및 공무]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6	062-943-8676
한솔OASIS구입업	사무용기구 제작납품및 영업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6	062-959-633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직장인 68% "사표 쓴 적 있다"

채용포탈 '사람인' 1천732명 설문

채용포탈 사람이인 직장인 1천732명에게 사표를 써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68%가 '있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표를 쓴 이유로는 '상사와의 업무상 마찰 때문'에(27.8%), '연봉·처우가 불만족스러워서'(21.9%), '회사의 불합리한 행정 때문에'(16.4%) 등을 꼽았으며 사표를 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2.9%만 실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의 46.8%는 자신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이유로 '회사내 자신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34.5%), '회사가 인력 감축중이어서'(23.8%), '최근에 성과가 없어서'(22.6%)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

## 관절염 치료기 '노블라이프' 시판



(주)뉴플로젠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기 '노블라이프'를 시판한다. 아주대 세포치료센터 민병현 박사팀과 공동 개발한 이 초음파 관절염 치료기는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특성상 통원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치료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제품은 또 기존 패취나 약물 등을 통한 일시적인 통증완화 수준에서 벗어나 손상된 연골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자가연골 생성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가격은 98만원. 문의 02-326-3653.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